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전망과 시장동향

아시아 NIEs

1. 최근 경제동향

가. 안정적 경제성장 지속

아시아 NIEs는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로 인해 대외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큰 편이며,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의 교역환경 변화는 NIEs 각국 경제변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아시아 NIEs 3개국(대만, 홍콩, 싱가포르)중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만과 홍콩은 공공투자부진, 중국의 거시경제적 긴축정책 등 요인에 의해 당초 목표치에 못미치는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인근 ASEAN국가의 고성장과 제조업의 활황에 기인한 대외무역의 급신장으로 93년중 여타 NIEs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대만

대만경제는 '92년에 국가건설 6개년 계획의 당초 성장목표인 7%를 훨씬 밑도는 6.02%의 다소 부진한 경제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93년에도 정부의 예산축소, 공공투자 감소, 수출부진 등으로 6.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홍콩

'89년 천안문 사태이후 '92년에 가장 높은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홍콩은 '93년에는 정부투자와 민간 소비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긴축경제 정책에 따른 수출증가율 둔화로 전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싱가포르

'92년중 5.8%의 성장률을 기록한 싱가포르는 '93년에는 인근 ASEAN의 고성장과 주종산업인 전자산업의 호황에 따

른 대외무역의 급신장에 힘입어 7.5~8.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대일 무역역조 심화

원부자재의 對日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적 요인에 기인, 극심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NIEs는 '92년중 한국을 포함, 416억弗의 무역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93년에는 500억弗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국별로는 대만이 120억弗, 홍콩 200억弗, 싱가포르 130억弗 규모의 對日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다. 극심한 인력난 지속

80년대 이후 줄곧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있는 아시아 NIEs는 최근 들어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에 이어 '93년에도 2.0% 이하의 실업률을 계속 유지할 것으

아시아 NIEs의 對日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국 별	1992			93.1~11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대 만	19,090	8,702	10,388	19,976	8,887	11,089
홍 콩	18,625	1,882	16,743	20,717	1,833	18,884
싱가포르	11,670	2,783	8,887	15,064	3,233	11,831

(자료 : 일본 대장성 속보)

아시아 NIEs의 실업률

(단위 : %)

국 별	1992	1993
대 만	1.5	1.5
홍 콩	1.9	1.8
싱가포르	2.7	2.0

(자료 :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정부)

로 전망돼 인력난 해소는 아시아 NIEs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중 하나가 되었다.

2. 94년 경제전망

가. 대만

① 경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대만정부의 예산규모 동결, 국가건설 6개년 계획의 진도부진, 수출증가율 둔화현상 지속 등의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94년 대만경제는 '93년도 수준인 6.2%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무역

대만의 대외무역은 '93년들어 對日 무역역조 심화, 對中國 무역수지 흑자 급증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전체적으로 수출둔화 추세를 보였다.

'94년에는 대만 元貨의 평가절하와 엔高의 가시적 효과로 인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환율

'92년까지 빠른 속도로 절상되었던 대만 元貨는 93년부터 수출증가율 둔화와 함께 절하세로 반전, 이 추세가 '94년까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홍콩

① 경제

그동안 건설비용 책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210억弗 규모의 홍콩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1992	1993(예상)	1994(전망)
G N P	US\$억	2,107	2,203	2,372
경제성장률	%	6.0	6.0	6.2
1인당 GNP	US\$	10,202	10,570	11,265
총 수출	US\$억	814.7	835.8	925.3
총 수입	〃	720.1	772.4	842.2
경상수지	〃	51	37	19
소비자물가	%	4.5	2.9	3.8
실업률	〃	1.5	1.5	1.5
환율	NT\$/US\$	25.17	26.21	26.85

(자료: 대만 경제부)

홍콩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1992	1993(예상)	1994(전망)
G N P	US\$억	966	1,012	1,058
경제성장률	%	5.3	5.5	4.5~5.0
총 수출	US\$억	1,200	1,388	1,646
총 수입	〃	1,241	1,428	1,685
경상수지	〃	20	15	20
소비자물가	%	9.4	9.5	10.0
실업률	〃	1.9	1.8	2.3
환율	HK\$/US\$	7.72	7.76	7.75

(자료: 홍콩정부)

신공항 건설이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경기 진작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과열경기 진작을 위한 긴축경제 정책의 영향이 '9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94년에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93년보다 다소 위축되어 5%이내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② 무역

홍콩은행에 의하면 홍콩의 '93년 및 '94년중 수출은 '92년의 19% 증가에 비해 훨씬 감소한 13% 및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94년초 중국

의 자금유통이 완화되고 對美 최혜국대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94년도 홍콩의 대외 무역은 '93년보다 다소 호전되어 수출은 18.6%, 수입은 1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환율

홍콩 달러貨의 시장환율은 83년 10월이후 對美 달러貨 연동환율 HK\$ 7.8=US\$ 1로 고정된 이래 커다란 변동없이 대체로 약강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92~'93년사이 美 달러당 HK\$ 7.72~7.76사이를 연동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9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2	1993(예상)	1994(전망)
경제성장률	%	5.8	7.5~8.0	7~7.5
총 수출	US\$억	643.8	737.2	836.7
총 수입	〃	732.1	843.7	955.9
경 상 수 지	〃	29	37	19
소비자물가	%	2.3	2.5	3.0
실 업 률	〃	2.7	2.0	2.2
환 율	S\$/US\$	1.64	1.54	1.58

(자료 : 싱가포르 통계청)

다. 싱가포르

① 경제

'94년 싱가포르 경제는 제조업 호황 지속에 힘입은 대외 무역의 꾸준한 성장과 인근 ASEAN의 지속적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7~7.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무역

싱가포르 교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산업 분야의 꾸준한 신장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5% 이상의 교역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③ 환율

미 달러화에 대한 강세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싱가포르 달러貨는 그동안 매년 3~6%씩 절상되어 왔는데, '93년에는 높은 경제성장세 및 경기호황으로 연말까지 6% 정도의 평가절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94년에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세와 함께 강세기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시장여건 변화

가. 긍정적 측면

① 한·대만 관계 재정립

92년 8월 한·중 수교로 단절되었던 양국 외교관계가 지난해 7월 27일 양국 실무 대표단이 비공식 관계 수립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11월 25일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가 설립되었고 금년 1월 이내에 주한 대만 대표부가 설립될 예정이다.

대만정부는 단교이후 한국에 자동차 쿼터 철회, 농산물 수입금지, 국가건설 6개년 계획 참여 배제, 국제입찰 참여 금지, 일본·대만간 국적선사의 적취금지 등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던 바, 양국 관계 재정립후 이 조치들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항공운항 재개문제는 전례로 보아 중화민국 국기 사용 여부를 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대만의 GATT가입 추진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인하

GATT 가입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대만 행정원 소속 GATT가입 전담반은 '93년 12월 21일 '94년내에 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

이 되기 위해 향후 1년내 협상을 종결키로 하고 특히, GATT 가입 이전에 실질 관세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만 경제건설위원회(경제기획원)은 대만의 실질 관세율을 현행 4.2%에서 3.5%로 인하할 예정이며, '94년 초 대만·미국간 관세협상시 미국측의 요구를 전면수용, 개별품목 관세율이 공산품의 경우 10%, 농산품의 경우 20% 이하로 2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③ 중국 긴축정책 완화 조짐

중국의 GATT회원 복귀 추진에 따른 무역정책 활성화, 수입정책 투명화, 관세인하, 수입허가증 폐지 등 조치로 중국의 전반적인 수입시장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어서 중계무역 기지인 대홍콩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4년부터 중국의 금융, 재정, 세제 등 개혁의 조정 본격화 및 국영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중국의 이른바 제2의 개혁현상 가시화로 수출환경 변화 요인이 증대됐다.

④ 홍콩 및 중국의 공공투자확대

건설비용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어왔던 홍콩 신공항 및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최근 중국이 반대입장 철회를 시사함에 따라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내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장, 노후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홍콩 경유 對中國 수출의 호조가 예상된다.

나. 부정적 측면

① 대만의 반덤핑제소 강화

한·대만 단교이후 대만업체들이 한국산 철강, 석유화학제품류 9개품목에 대해 반덤핑제소 한데 이어 '93년 12월 17일 대만 재정부 관세세율위원회는 한국산 폴리에틸렌에 대해 최저 6.77%에서 최고 29.16%에 달하는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대만정부는 反덤핑 제소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국측의 수출자유규제안이 받아들여진 후관을 제외한 기타 7개 품목의 덤핑판정 향방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대만 국가건설 6개년 계획 진도 부진

대만정부는 그동안 집행예산의 부족으로 난황을 겪고 있는 국가건설 6개년 계획 규모를 NT\$ 8조 2000억(약 3,030억弗)에서 NT\$ 6조 500억으로 축소 조정했다.

국가건설 6개년 계획의 차질은 최근 대만 경제침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③ 중·영정치적 마찰 심화

홍콩반환을 앞두고 대홍콩 영향력 강화를 위한 중·영간 정치적 마찰이 심화, 홍콩 및 외국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고급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부정적 요인이 노정되

고 있다.

4. 우리의 대응

가. 화남경제권과의 경제교류 확대

화남경제권은 아시아 최고 금융, 통신, 정보, 서비스산업 중심지인 홍콩을 핵으로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는 주장삼각주 경제개발구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약동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진출강화는 상품수출시장 확대, 플랜트 수출시장 개발,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해외생산기지 확보 등의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우리의 대화남지역 진출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남부 소비시장을 겨냥한 유통업 및 도·소매업 진출 확장

- 고기술 분야 상품의 제조업 투자

- 활성화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상품의 전략적 투자 진출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현지 개발수요를 겨냥한 통신, 운송 등 인프라 설비 생산 투자 및 서비스업 투자

- 지역개발의 확충을 겨냥한 제3차 산업의 투자

- 중국내 투자진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

- 홍콩을 포스트로한 외주 가공성 투자

나. 대만과 경제협력 강화

양국간 민간관계 수립 및 대만의 관세인하 추진정책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만시장 확보 노력이 요망된다.

이와 관련 대만시장진출의 적기로 판단되는 향후 1~2년간 현지사무소 개설 및 수출상품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아울러 중국인들의 기질적 특성을 이용한 친화력 유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진출 노력을 증진한다.

또한 최근 대만업체의 반덤핑 공세와 관련해 수출자유규제의 범위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현지 파견을 통한 적극적인 협상노력이 요망되며 관련품목의 향후 대만 수출은 우리업체간의 경쟁적인 저가수출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정거래가 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참여 확대

94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10억弗 규모의 홍콩 신공항 건설과 2,500弗 규모의 대만 국가건설 6개년 계획 추진과 관련한 건설 프로젝트 참여와 원·부자재 수출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호텔, 식당 등 부대시설에 대한 서비스업 투자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ASEAN

1. 최근 경제동향

가. 고도 경제성장

'92년에 6%(싱가포르, 브루나이 포함)의 실질 GDP성장을 이룩한 ASEAN은, '93년에는 6.7%(싱가포르, 브루나이 포함)정도의 실질 GDP 성장을 이룩하면서, 주요 선진국이나 NIEs 국가들의 성장을 초과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지속했다.

이같은 결과는 역내 교역 및 투자유입 확대와 민간부문 소비증대,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 등에 기인한다.

각국별로는 필리핀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7~8%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인도네시아

'92년 6.1%의 GDP성장을 보였던 인도네시아는 공공부문 투자확대와 수출증대에 힘입어 93년에는 7%의 GDP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필리핀

'92년 0%의 성장을 나타냈던 필리핀은 93년에는 1.1%의 GDP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말레이시아

'92년 7.8%의 GDP성장대비 93년에는 8%의 성장이 예상된다.

④ 태국

'92년 7.5%의 GDP성장을 보였던 태국은 제조업부문에 있어 수출증대와 민간부문 소비

증대에 힘입어 '93년에도 7.5%의 GDP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인플레이 완화

ASEAN 각국의 92년 물가상승률은 6.2%(싱가포르, 브루나이 포함)로 나타나 있으나, '93년에는 다소 낮아진 6.0%(싱가포르, 브루나이 포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9%, 말레이시아가 3.8%, 필리핀이 7.8%, 태국이 3.7%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92년 112억弗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ASEAN 각국은 '93년에도 60억弗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는 ASEAN 각국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있어서의 자본재, 중간재에 대한 수입급증에 기인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강력한 무역수지 개선 노력으로 '93년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1991	1992	1993(예상)	1994(전망)
경제성장률	8.7	7.8	8.0	8.2
농림수산업	0.04	4.3	3.0	1.6
제조업	13.9	10.5	12.5	13.0
광산업	2.5	1.7	-1.2	2.2
건설업	14.6	11.2	11.0	11.7
서비스업	10.4	9.0	8.7	8.9

(자료: Economic Report, 말레이시아 재무부)

2. 94년 경제전망

가. 말레이시아

'94년에는 정부소비와 투자, 대외부문에서는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민간 제조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민간소비 증대와 인플레이 확충 등에 따른 건설특수에 힘입어 8.2%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목재, 천연고무, 원유, 팜오일 등 원자재의 수출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외국투자기업에 의한 수출산업고도화로 공산품 수출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조립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완전고용 상태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제품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94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부문에 있어 무역흑자를 기속하기 위해 '94년에도 고평가 관리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美 달러貨에 대한 링기트貨의 환율은 달러당

말레이시아의 수출입 추이

(단위 : M \$ 백만, %)

구 분	1992		1993(예상)		1994(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 출	103,657	9.7	120,225	16.0	137,173	14.1
수 입	101,440	0.6	113,639	12.0	129,889	14.3
무역수지	2,217	-	6,568	-	7,284	-

(자료 : Economic Report, 말레이시아 재무부)

RM 2.50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필리핀

라모스 대통령 집권이후로 정정이 안정되고 국내물가의 안정, 금리 하락 등으로 기업 활동 및 투자의욕이 회복되면서 '94년 경제성장은 3.5~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정부의 수출산업 육성정책과 '93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폐소貨의 가치하락으로 '94년 필리핀의 대외수출 증가율은 14.4% 정도로 전망된다.

수입도 인플레이 확충에 따른 자본시설재 및 건설관련 수입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수출 증가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94년 美 달러貨에 대한 폐소貨의 실세환율을 달러당 P 32이상으로 전망된다.

다. 인도네시아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94년도에는 계획기간중의 연평균 성장 목표치인 6.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재, 고무, 팜오일, 커피 등 비석유류 1차산품과 섬유, 신발 등 공산품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은 정부의 강력한 수입 억제 정책으로 인해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美달러貨에 대한 루피貨의 환율은 93년 달러당 Rp. 2,125로 나타나 있으며, '94년에도 달러당 Rp. 2,200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추이

(단위 : US \$ 백만, %)

구 분	1992		1993(예상)		1994(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 출	33,967	16.6	37,214	9.55	42,535	14.3
수 입	27,279	5.5	30,098	10.3	35,184	16.9
무역수지	6,688	-	7,116	-	7,351	-

(자료 : Central Statistics Bureau)

태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

구 분	1992	1993(예상)	1994(전망)		
			상반기	하반기	계
경제성장률	7.5	7.5	7.6	8.0	7.8

(자료 : 태국 중앙은행)

태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US \$ 십억, %)

구 분	1992		1993(예상)		1994(전망)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수 출	32.9	13.3	36.2	10.2	42.0	15.9
수 입	40.5	7.1	46.0	13.6	53.3	15.9
무역수지	-7.6	-	-9.8	-	-11.3	-

(자료 : 태국 중앙은행)

라. 태국

태국은 수출과 민간부문 소비증대로 '94년 7.8%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UR이 타결됨에 따라 '94년 태국의 농산물 수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며 공산품 수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총 16%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투자가 회복되고 소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94년에도 큰 폭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94년에도 113억 弗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달러貨 링크제에서 복수 통화 바스켓제로 바뀐 바트貨

는 달러貨에 강세, 엔貨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안정적 추이를 지속할 전망이다.

3. 시장여건 변화

가. 대외적 요인

92년 1월 싱가포르의 ASEAN정상회담에서 '93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예정되었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구상이 회원 각국의 이해상충 및 준비 미비로 지연을 거듭하자, ASEAN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93년 10월 싱가포르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새로이 관세인하 계획을 검토,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재차 합의 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으나 AFTA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역내교역이 증대되고 역내국과 역외국간 차등관세가 적용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입이 확대될 것이며, ASEAN 국가간 분업이 촉진되고 부문별 광역시장이 형성되어 산업특화 현상이 촉진될 것이다. 한편 산업특화에 따라 자원활용, 규모의 경제활용 등으로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NAFTA가 미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ASEAN 각국은 미국의 대외투자가 ASEAN으로부터 멕시코로 이전될 것을 우려, 향후 AFTA 추진을 위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피오카,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의 대외

ASEAN 주요국별 연평균 환율추이

(현지貨/US \$)

구 분	1991	1992	1993(예상)	1994(전망)
필 리 핀	26.6500	25.0960	29.5000	32.000
인도네시아	1,997	2,062	2,125	2,200
태 국	25.50	25.38	25.30	25.20

註: 연말기준

수출 비중이 높은 ASEAN 각국은 UR 타결에 따라 자국의 농산물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나. 대내적 요인

ASEAN 각국의 고성장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로 가전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의 수요증대나 외환자유화 및 기타 규제완화 등 ASEAN 각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기계류 등 자본시설재와 제품생산용 원부자재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수요가 증대되었다.

4. 우리의 대응

가. 전략적 수출시장

'70년대 이후 ASEAN은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생산설비와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소득증대에 따른 내수소비가 증가하는 등 잠재력이 큰 유망경제권으로 부상했다.

한편 '93년 상반기중 ASEAN시장은 EC 시장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수출증가율은 8.1%에 불과해 '87년부터 92년까지 대ASEAN 수

출증가율이 연평균 3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볼때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수출이 ASEAN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92년 1년동안 ASEAN 수입시장점유율은 4.4%에 불과해 향후 우리상품의 국제 경쟁력에 제고 노력 여하에 따라 이 시장 수출증대 여지는 무한한 상황이다.

나. 대ASEAN 수출전략 강화

ASEAN의 공업화 진전에 따른 자본재 및 중간재 수요증대, 소득증대의 결과로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ASEAN 각국별로 소득수준에 적합한 수출상품 다양화 및 제품차별화 촉진과 향후 계속 늘어날 현지 진출 기업과 국내 공급업체간 유대를 강화해 생산설비, 부품, 소재 등의 수출유발효과 극대화해야 하며 우리상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현지광고, 상설전시장 설치, 사후관리 등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SEAN의 수입대체화 노력, 여타 외국기업의 현

지진출 움직임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선진국의 시장선점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사전조사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ASEAN 제품과의 차별화로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경쟁력 유지 및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현지투자 확대

AFTA가 추진되면서 각국별로 투자여건이 변화할 것이므로 진출업종의 다양화, 고도화를 통한 전략적 해외생산, 판

매거점 확보와 국내와 ASEAN간 공정간·제품간 분업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부품업체간 연계진출을 강화하며, 가능한 비교우위부문을 특화해 국내산업을 고도화시키고, ASEAN내 거점 국가별로 전략적 분업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라. 한·ASEAN간 대화협의체 지위활용 강화

우리나라는 91년 7월 ASEAN의 완전대화협의체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한·ASEAN간 협력의 기틀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는데 대만, 홍콩 등이 가지지 못한 협력채널을 통해 對 ASEAN 시장진출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본고는 KOTRA에서 발행하는 「해외시장」 '94. 1. 8일자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해외정보통신전시회(CeBIT '94) 참관단 모집안내」

정보통신산업은 다른산업에 과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각국은 첨단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통신분야, 컴퓨터로 통합된 생산관리 기술, 연구컨설팅, 사무자동화, CAD, CAM 등의 품목으로 최신기술정보 및 첨단제품이 선보일 세계최대의 컴퓨터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CeBIT '94(독일 하노버 개최)에 참관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여 참관코자 하오니 관련업계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참관단명 : CeBIT '94 참관단
- 나. 참관일정 : '94. 3. 17~3. 24(7박8일)
- 다. 참가비 : 1,700,000원/1인(신청시 300,000원 선납부)
- 라. 신청기간 : '94. 2. 27까지
- 마. 문의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과
Tel : 553-0940(직), 553-0941(교환 36, 37)
Fax : 563-7339